

효율적인 대학 교양영어교육의 방향 및 제언

방영주

명지대학교

Bang, Youngjoo. (2014). Improving a general English program through the students' perceptions at a university. *Modern English Education*, 15(4), 221-245.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present state of college English program and suggest a more effective program at a university. A surve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students' attitudes about the program. The participants were 345 students who had taken and were taking the either of two required courses. After analyzing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12 students were selected to be interviewed to complement the questionnaire. The questionnaire consists of the followings: degrees of satisfaction on the program and the sub-categories of courses (class size, textbook, grading, instructors' teaching styles, and classroom facilities), course objectives, credits, class hours, the efficiency of a level-differentiated curriculum, certification of English proficiency, and extra-curricular non-credit program. The study shows overall satisfaction of the program from the respondents, but they indicated several areas that can be further improved. They expressed high level of needs in increasing the number of courses, reducing the class size, improving facilities, and encouraging students' participation. Also, the findings revealed that the respondents acknowledged the usefulness of level-differentiated curriculum. Pedagogical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were provided towards a useful model for instructors and administrators of college English program in other universities.

[college English program/general education curriculum/
대학영어교육/교양교육과정]

I. 서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제화 및 세계화의 추세로 국내의 영어교육 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학들도 최근 급변하는 국내외 추세 속에서 그 변화에 발맞추어 다양한 시도를 해 오고 있다. 변화의 핵심에는 교양의 증진 또는 전공 학문 연구를 위한 외국어 습득이라는 전통적인 교육 목표로부터 세계화 및 개방화 시대에 영어로 된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의

사소통 능력의 훈련과 영어 상용국의 문화 관습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국제인으로서의 자질 배양이라는 새로운 교육 목표로 전환을 모색했다. 국내 대학들은 새롭게 설정된 교육목표에 발맞추어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들을 시행하면서 효율적인 교양영어 교육을 위한 변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국내 대학 영어교육에 일고 있는 변화의 추세를 반영한 최근 몇 년의 연구들은 효율적인 교양영어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많은 영어교육 학자들과 연구자들이 대학 교양영어 교과과정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위하여 구체적인 제안을 하였다(박준언, 2005). 그러한 연구들 중에는 여러 대학들이 교양영어 전담기구 발족 및 전담교원 확보(방영주, 2004; 이예식, 임홍미, 2005), 수준별 수업 도입(김영숙, 이지연, 2009; 김현옥, 이혜경, 2010; 성기완, 표경현, 이현명, 2004), 영어졸업인증제 및 영어능력인증제 시행(방영주, 양미란, 2011; 성명희, 2005; 정영숙, 최영승, 2002; 조정순, 2002), 멀티미디어 또는 온라인 매체활용을 통한 학습(권연진, 2002; 남정미, 김성애, 2008; 임희정, 2005; 최연희, 강명희, 2002), 온라인-오프라인 병행한 학습(김경자, 2004; 김순복, 2000; 송희심, 2007; 최진국, 2008), 영어를 매체로 한 수업(M. Kim, 2009; S. A. Kim, 2002; S. Y. Kim, 2008; H. Oh & E. Lee, 2010; J. H. Lee, 2007) 등과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한 영어교육의 강화를 시도해 오고 있다.

교양영어의 효과적인 운영 및 개선을 위해서는 교수자 또는 학습자와 같은 직접적인 교육의 주체를 대상으로 요구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교육현장에서 요구분석을 통하여 학습 주체의 필요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이유와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Nunan(1988)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습자 요구조사의 분석을 토대로 한 교과과정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Brown(1995) 역시 효율적인 영어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수자 및 학습자를 대상으로 목표 설정, 교재, 평가, 수업 방식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요구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대상 학교의 교양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완과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대상 대학의 교양영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학습자들의 요구와 기대치를 수렴하여 현행 프로그램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영어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습자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교양영어 교과과정 및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분석 결과에 나타난 교양영어교육 만족도와 개선책에 대하여 학습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학습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대학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대학 교양영어 교육

1. 국내 대학 영어프로그램 만족도 연구

지난 10년간에 걸쳐 국내 대학 영어교육에 관한 연구는 주로 대학의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사례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교육의 주체가 되는 학습자나 교수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 통해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송미정과 박용예(2004)는 서울의 한 대학교 교양영어 프로그램에 대하여 학습자들의 영어능력이 향상된 정도를 사전사후 시험결과를 객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그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 하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교수자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강의의 구성 및 수준, 수업 규모 및 학생들의 수준,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 교재, 수업의 효과 및 학습동기, 시험 등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양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개선점을 모색하였다.

방영주(2004)는 연구 대상 대학에서 학습자와 교수자를 대상으로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만족도, 각 부분별 만족도(강좌수, 강좌내용, 교재, 강의실 제반시설, 강좌당 학생수), 학습목표, 효과적인 교수법, 수준별 수업, 영어졸업 인증제, 그리고 학습자의 학습전략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바람직한 교양영어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학습자와 교수자 대부분이 교양영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비교적 만족하고 있으나, 다양한 영어과목 개설, 효율적 수준별수업을 위한 반편성 평가도구 시행, 전공별 영어졸업 인증점수의 유연성, 정규과정 외 어학 프로그램이나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습할 공간 조성을 위한 학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조하였다.

마찬가지로, 이예식과 임홍미(2005)는 타 대학 교양영어교육 실태를 비교 하면서,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 대상 학교의 교양영어 과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교양과목의 필수화, 수업시수 확대, 수준별 수업과 소규모 학급구성, 다양한 교과목 개설, 교양영어 전담부서 신설 및 교수자의 전문성 확보 등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현옥(2007)은 경기도 한 대학의 교양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교양영어 수업의 목적과 필요성, 전반적인 교과과정 및 교재 만족도, 수업의 기능별 효용성, 영어강의의 효과, 수업 내용의 구성, 바람직한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교수자 및 학습자들의 인식을 비교 검토하면서 교육과정의 개편과 시행에 있어서 다각적인 견해를 수렴하고자 하였다.

김상수(2009)는 연구 대상 대학의 학습자와 교수자를 대상으로 교양영어 프로그램 교육목표, 전반적인 만족도, 교재, 수준별 수업, 수업방법, 평가방식, 비정규 영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문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국내 주요 대학교양 영어프로그램 현황

먼저 국내 주요 대학들의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에서의 영어교육은 크게 필수교양 영역과 선택교양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필수교양 영역은 졸업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며 선택교양 영역은 졸업을 위해 학습자의 선호에 따라 선택하여 수강하는 과목을 의미한다. 대다수의 대학들이 영어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서 졸업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양영어(이하 필수영어) 과목을 중심으로 교양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 조사를 위해 4년제 서울 및 경기 그리고 지방의 4년제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 홈페이지상에 탑재되어 있는 필수영어 프로그램을 살펴본 후 전국 29개 주요 대학을 대상으로 각 대학의 교양영어 담당자 및 영어과 교수님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국내 주요 29개 대학의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현황(부록 1)에서 필수영어 과목의 총과목수, 총학점수 및 주당 수업시간 수, 수강인원, 학급편성, 그리고 담당 교수자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 | | | | | | | | | | | |
|----------|--------------|----------------|------------------|----------------|---------------|----------------|--------------|--------------|------------|--|--|
| 과목수 | 1과목 17.2% | 2과목 48.3% | 3과목 10.3% | 4과목 17.2% | 6과목 6.9% | | | | | | |
| 총 학점수 | 2학점 3.5% | 3학점 13.8% | 4학점 34.5% | 6학점 31.0% | 8학점 10.3% | 12학점 6.9% | | | | | |
| 수업 시수 | 2시간 3.5% | 3시간 10.3% | 4시간 17.2% | 6시간 27.6% | 8시간 27.6% | 10시간 3.5% | 12시간 3.5% | 24시간 3.5% | | | |
| 수강 인원 | 20미만 5.9% | 20~24 20.7% | 25~29 27.6% | 30~34 27.6% | 35~39 5.9% | 40~44 14.7% | 50 2.9% | 60 2.9% | 70 2.9% | | |
| 학급 편성 | 수준별 75.9% | 수강자별 6.9% | 전공별 17.2% | | | | | | | | |
| 교수자 | 원어민 37.9% | 내국인 6.9% | 원어민&내국인 55.2% | | | | | | | | |

그림 1 필수영어 과목수, 총학점수, 시수, 수강인원, 학급편성, 교수자

그림 1에 따르면 29개 대학 중에서 14개 대학(48.3%)들이 필수영어 과목으로 2과목을 개설하는 학교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4과목(17.2%), 1과목(17.2%), 3과목(10.3%), 6과목(6.9%) 순이었다. 또한,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필수영어 학점 수에 대해서는 4학점(34.5%)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6학점(31.0%)이 많았으며, 2학점(3.5%)을 이수해야 하는 학교가 상대적으로 가장 적었다. 주당 수업시간 수는 6시간(27.6%)과 8시간(27.6%)이 똑같이 가장 많았고, 4시간(17.2%)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반별 수강인원으로는 25~29명(27.6%)과 30~34명(27.6%)인 학교들이 가장 많았고, 20~24명(20.7%)인 학교는 그 다음으로 많았다. 부록 1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 대학에서 필수영어과목으로 영어회화와 영어독해를 개설한 경우에는 많은 대학들이 영어회화 과목 수강인원은 20~30명이었고 영어독해 과목은 30~40명이었다.

학급편성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75.9%)들이 수준별 수업을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교수자에 대해서는 원어민과 내국인이 함께 담당하는 학교가 55.2%로 가장 많았고, 37.9%는 원어민이, 6.9%는 내국인 교수자가 수업을 담당하였다. 또한 동일 대학에서 필수영어 과목을 회화나 독해로 나누어 실시할 경우에는 회화과목은 원어민이 독해과목은 내국인 교수자가 담당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들은 서울의 중서부 지역의 한 대학에서 필수영어과목을 모두 이수했던 145명의 학생들과 2014년 봄학기에 필수영어 과목을 수강하는 135명 학생들과 필수영어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선택영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65명을 포함한 총 345명 학생들로 구성된다. 전공별로는 인문(128명), 경상(82명), 사회(109명), 그리고 법정(26명)계열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남학생은 161명(46.7%)이었고, 여학생은 184명 (53.3%) 이었다. 응답자들은 1학년에서 4학년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나이는 20세에서 29세까지 이른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현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교과과정 세부내용에 관한 설문조사에 참여했고, 설문조사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설문조사에 응했던 자원하는 12명 학생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도 병행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2014년 봄학기에 총 35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필수교양영어를 이수했던 150명의 학생들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전자메일로 보내어 실시하였고 이들 중 145명의 설문 결과만이 회수되었다. 또한 2014년 연구 당시 필수영어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과 선택영어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2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담당교수의 양해를 구하고 수업시간에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수거하였다.

설문지는 방영주(2004)와 김상수(2009)를 참고하여 연구자에 의해 개발 되었으며, 한글로 작성되었고 익명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크게 6영역으로 나뉘어 교양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총 학점수와 주당 시수, 필수영어 과목의 목표, 세부적인 만족도(강좌의 종류나 내용, 강좌당 학생 수, 교수자의 전문성 및 교수법, 평가방법, 강의실 환경), 교재(학습분량, 내용의 흥미도 및 다양성, 난이도 수준, 시각적 구성, 시청각 자료 포함) 만족도, 반별 적정 인원수, 보완되어야 할 수업방법, 적절한 학점수와 시수; 수준별 수업의 필요성 및 찬성(반대) 이유, 반편성 평가도구; 영어졸업인증제과 영어인증 학점제 필요

성 및 찬성(반대) 이유, 적합한 평가도구; 선택영어 과목 개설 필요성 및 이유; 비정규 교과과정 영어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개설 원하는 프로그램, 학점인정 필요성에 관한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설문문항은 교양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프로그램의 각 부분별 만족도에 대해서는 1-4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를 1, ‘만족하지 않는다’를 2, ‘만족한다’를 3, ‘대단히 만족한다’를 4로 구분하여 응답하게 하였는데, 이것은 1부터 5까지의 5가지 홀수척도를 사용할 경우 응답자들이 평균보다 상위 또는 하위 등급을 선택하기 보다는 중간등급을 택하는 경향인 중앙집중현상(central tendency)을 막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질량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설문조사 도구를 통하여 수집된 수치상의 자료는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적 통계를 통하여 분석되었다.

3. 연구대상 대학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실태

본 논문의 연구 대상 학교에서 개설되고 있는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보면 필수영어 과목으로 영어회화 2과목(각 1학점 2시간)과 영어독해 2과목(각 2학점 2시간)을 수강하여 총 6학점 8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필수영어 과목 수강을 위해 학습자의 영어능력에 따른 수준별 수업을 2002년 이래로 실시해 오고 있다. 매년 입학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반편성 평가도구인 모의토의 시험을 치르게 하여 하위·중위·상위단계로 나눈다. 하위 15% 학생들은 필수영어 과목 수강을 위해 선수 과목으로 <기초영어> (2학점 2시간)를 이수해야 하고, 필수영어 과목인 <영어회화1>과 <영어1>을 이수 후 <영어회화2>와 <영어2>를 이수해야 한다. 반면 영어능력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필수영어 수강을 면제해주는 영어능력인증제를 실시함으로 상위 5% 학생은 필수영어 과목 수강을 면제받는다. 하위 15%와 상위5%를 제외한 나머지 중위단계는 시험성적에 따라 두 단계로 더 세분화하여 일정 점수 이하의 학생은 필수영어 과목으로 <영어회화1>, <영어회화2>, <영어1>, <영어2>, 일정 점수 이상의 학생은 <영어회화3>, <영어회화4>, <영어3>, <영어4>을 이수해야 한다.

영어회화는 원어민이 영어독해는 내국인 교수자가 담당하고 있고, 영어회화는 수강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하는 반면에 영어독해의 최대 수강인원은 36명이었다. 2014년 1학기 당시 12명의 원어민 교수와 3명의 내국인 전임교수 외 9명의 내국인 강사가 가르치고 있으며 교양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기초교육대학 영어과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학습자의 선호에 따라 선택영어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데, 선택영어 과목으로 고급영어청해, 시사영어, 영어토론, 기초영작문, 토익, 고급영문독해, 비즈니스영어, 실용영문법, 영어발표&토의 등의 과목(각 3학점 3시간) 등이 개설된다. 또한 연구대학은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능력이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졸업하지 못하는 영어졸업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필수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및 세부항목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를 설문지의 구성 순서에 따라 제시하였고, 척도상으로 질문된 개별 항목에는 응답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명시하는 반면에 적절한 항목에 응답자들이 선택하여 답하는 방식에는 응답 빈도수와 빈도 분포로 제시하였다.

1. 필수영어 프로그램

필수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필수영어과목 총 학점 수와 주당 수업시간 수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을 때, 그림 2처럼 필수영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총 345명 응답자들 중에서 72.7%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으며, 27.3%가 만족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학생들은 본 연구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필수영어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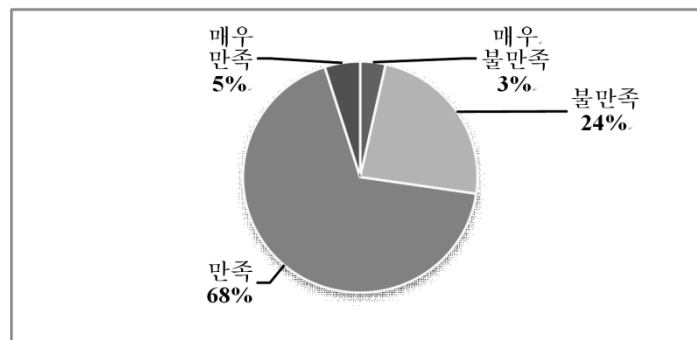


그림 2 필수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또한, 필수영어 과목의 총 학점 수와 주당 수업시수가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서 표 1의 결과처럼 198명(57.4%)의 학생들이 적절하거나 매우 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에, 147명(42.7%)은 적절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들에게 적절한 총 학점 수와 주당 수업시수에 대해 물었을 때, 영어독해의 경우 6학점(40%)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8학점(24%), 3학점(12%), 5학점(11%), 10학점(7.0%), 2학점(6%) 순으로 선호도를 보인 반면에, 영어회화는 4학점(38%)을 가장 선호하였고, 8학점(12%), 3학점(12%), 9학점(9%) 10학점(7.0%)이 적절하다고 대답하였다.

표 1

필수영어 과목 총 학점 수 및 주당 수업시간 수에 대한 만족도

| 만족도 | 매우 부적절 | 부적절 | 적절 | 매우 적절 |
|--------|----------|------------|------------|-----------|
| 학생수(%) | 34(9.9%) | 113(32.8%) | 154(44.6%) | 44(12.8%) |

주당 시수에 대해서는 영어독해는 6시간(44%)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 하였고, 그 다음으로 8시간(22%), 5시간(14%), 10시간(10%), 3시간(6%), 2시간(5%) 순이었다. 영어회화의 경우에는 6시간(38%), 8시간(33%), 10시간 (10%), 9시간(7%), 12시간(7%) 순으로 선호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프로그램에 만족하지 않은 학생들은 영어독해의 경우에는 6학점이 적절하고, 8시간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고, 영어회화는 4학점과 6~8시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과과정보다 더 많아야 한다는 의견을 보여주었다.

2. 필수영어 교과목

1) 영어 교과목의 목표 선호도

영어 교과목의 목표에 대한 선호도를 영어회화 과목과 영어독해 과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표 2

영어회화 과목의 목표 선호도

| 항 목 | 학생수(%) |
|-----------------------------------|------------|
| 영어를 구사하는 문화권의 사람들과 자유자재로 의사소통하기 | 141(41.4%) |
| 취업 시 면접 인터뷰나 서류작성 등 시험대비를 위해 준비하기 | 75(21.7%) |
| 앞으로 자기 전공 학습(졸업 후 유학)을 위한 영어실력 쌓기 | 39(11.3%) |
| 직장실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영어능력 기르기 | 84(24.3%) |
| 기타(무응답) | 4(1.2%) |

표 3

영어독해 과목의 목표 선호도

| 항 목 | 학생수(%) |
|---|------------|
| 독해전략을 통해 또는 영문서적 또는 전공관련 원서를 빨리 이해하는 영어능력 기르기 | 130(37.7%) |
| 지적인 생활을 위한 교양서적 읽기를 통하여 영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영어능력 기르기 | 46(13.3%) |
| 영어문장의 정확하고 완벽한 이해를 돕기 위해 문법구조와 어법 훈련을 통한 영어능력 기르기 | 71(20.6%) |
| 졸업 후 취업이나 유학을 위해 각종 시험대비를 위한 영어능력 기르기 | 97(28.1%) |
| 기타(무응답) | 1(0.3%) |

영어독해의 목표에 대해서, 표 3에서 살펴보듯이 37.7% 학생들이 ‘독해 전략

을 통해 또는 영문서적 또는 전공관련 원서를 빨리 이해하는 영어능력 기르기'라는 목표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졸업 후 취업이나 유학을 위해 각종 시험대비를 위한 영어능력 기르기'(28.1%)와 '영어 문장의 정확하고 완벽한 이해를 돕기 위해 문법구조와 어법 훈련을 통한 영어 능력 기르기'(20.6%)을 선호하였고, '지적인 생활을 위한 교양서적 읽기를 통하여 영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영어능력 기르기'(13.3%) 목표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2) 영어회화와 독해 과목의 세부적인 만족도

영어회화와 영어독해의 부분별 만족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그림 3처럼 영어회화의 경우 항목별 중에서 '교수의 전문성 및 교수법'에 대한 만족도가 척도 평균값 3.19로써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강좌당 학생수가 3.05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강의실 제반 환경'(2.84), '평가방식'(2.74) 이었고, '강좌의 종류나 내용'(2.72) 순으로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영어회화 과목의 개선이 이루어질 때 그 우선 순위가 강좌의 종류나 내용, 평가방식, 강의실 제반 환경, 강좌당 학생수, 교수의 전문성 및 교수법의 순으로 정해져야 함을 의미한다.

다른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면 그 선호도에서 조금씩 차이를 알 수 있는데, 정영숙과 최영승(2002)의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이 교수진의 전문성과 강의능력, 강좌당 학습자수, 강의실 제반 시설 순으로 만족하는 편이었다. 이에식과 임홍미(2005)는 학생들이 강좌당 학생수, 교수진, 강의실 제반시설 순으로 만족하였다고 보고한 반면에, 김상수(2009)의 연구에서 학습자는 교수진, 강의실 제반 환경, 강좌당 학생수, 평가방식 순으로 만족도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상이한 차이는 각 학교마다 각 교과목의 특성이나 대학 측의 행정적인 지원 여부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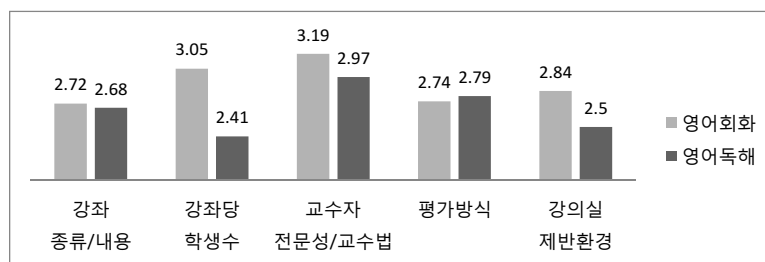


그림 3 영어회화와 영어독해 과목의 부분별 만족도

영어독해의 부분별 만족도에서는 영어회화와 마찬가지로 '교수자의 전문성 및 교수법'(2.97)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평가방식' (2.79), '강좌의 종류나 내용'(2.68), 그리고 '강의실 제반 환경'(2.50) 순으로 만족도를

보였다. 학습자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항목은 ‘강좌당 학생수’(2.41) 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교수자의 전문성 및 교수법’에 대한 높은 만족도는 정영숙과 최영승(2002)와 김상수(2009)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지만 ‘강좌 당 학생수’에 대한 본 연구의 낮은 만족도 결과는 해당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영어회화와 영어독해의 강좌당 학생수의 만족도에 대한 과목간 차이는 본 연구 대상 대학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원어민 교수자를 대거 채용하고 회화과목 수강인원을 20명으로 줄이는 행정적인 지원을 한 반면에, 영어독해는 수강인원이 35-40명으로 강좌별 학생수에 대한 대학의 행정적인 노력이 주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각 부분별에 대해 면담 조사하였을 때 주로 ‘강좌의 수가 너무 적다,’ ‘다양하고 효율적인 강좌가 필요하다,’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 강의실 개선이 필요하다,’ ‘수준별 수업을 위한 반편성이 학습자 간의 경쟁에 따른 학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였다.

3) 교재의 만족도

영어회화 교재에 대한 학습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그림4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척도 평균값 이상을 보임으로 비교적 만족함을 보였으며, 각 부분별에 대한 만족도는 시각적 구성(2.93), 시청각 자료(2.82), 학습분량(2.79), 난이도 수준(2.72) 순으로 응답하였고, 내용의 흥미도와 다양성(2.70)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에 영어독해의 경우는 학습분량(2.74), 시각적 구성(2.72), 내용의 흥미도와 다양성(2.64), 시청각 자료(2.61) 순으로 교재에 대한 만족도를 보였고, 교재의 난이도 수준(2.53)은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영어독해 과목의 교재에 대한 낮은 만족도에 대해서 실제로도 학생들과의 면담에서 교재의 난이도가 학생에 따라 일부 학생에게는 난이도가 높고 일부 학생에게는 난이도가 낮다고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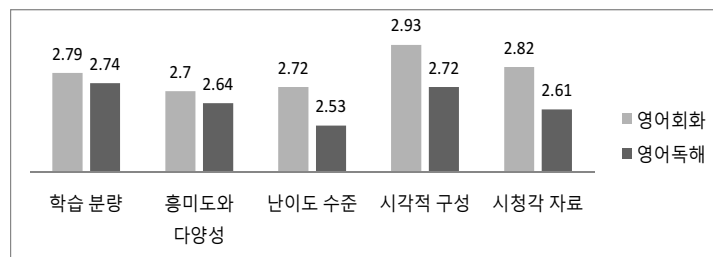


그림 4 영어회화 과목과 영어독해 과목 교재의 만족도

4) 반별 적정 인원 수

반별 적정 인원수로 몇 명이 적절하지 못했을 때 표 4처럼 영어회화의 경우에는 16~20명(44.6%)이 가장 적정 인원수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10~15명(29.3%), 21~25명(15.4%), 10명 미만(9.3%), 26~30명(1.4%) 순으로 선호도를 보였다. 영어독해의 경우에 학습자들은 26~30명이 적절하다는 대답이 38.0%로 가장 많았으며, 21~25명(26.4%)와 30~35명 (20.9%)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학생들과의 면담에서 독해과목의 경우에는 회화과목보다는 학생수가 조금 많아도 수업이 별 지장 없다고 생각한다는 응답과 함께 학생수가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표 4
반별 적정 인원수

| 항목 | 영어회화 학생수(%) | 항목 | 영어독해 학생수(%) |
|--------|----------------|--------|----------------|
| 10명 미만 | 32(9.3%) | 10~15명 | 8(2.3%) |
| 10~15명 | 101(29.3%) | 16~20명 | 32(9.3%) |
| 16~20명 | 154(44.6%) | 21~25명 | 91(26.4%) |
| 21~25명 | 53(15.4%) | 26~30명 | 131(38.0%) |
| 26~30명 | 5(1.4%) | 30~35명 | 72(20.9%) |
| 30~35명 | 0(0.0%) | 35~40명 | 11(3.2%) |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정동수와 김해동(2001)의 연구에서 영어회화의 경우 학습자의 91%, 교수자의 73%가 10~20명이 적절하다고 대답했다. 김상수(2009)의 연구에서 영어회화는 10~20명이 적당하다는 대답이 학습자 90%)와 교수자(84%)로 가장 많은 반면에 영어독해는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 20~30명을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으로 10~20명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종합적으로 반별 적정 인원수에 있어서 영어회화는 10~20명, 영어독해는 20~30명 정도의 규모로 수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보완되어야 할 수업방법

각 교과목의 수업방법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그림5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들의 각 과목들에 대한 보완 필요성의 견해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학습자들은 영어회화(2.91)와 영어독해(2.83) 모두 ‘적극적인 학습자의 수업 참여 유도’면에서 가장 보완되어야 한다고 응답 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영어회화는 ‘멀티미디어 시설을 활용한 흥미로운 수업 유도’(2.76), 영어독해는 ‘교수와 학습자간의 긴밀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의 필요성’(2.82)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영어회화의 경우 ‘멀티미디어 시설을 활용한 흥미로운 수업 유도’(2.69)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영어독해에서는 ‘교수와

학생간의 의사소통'(2.70)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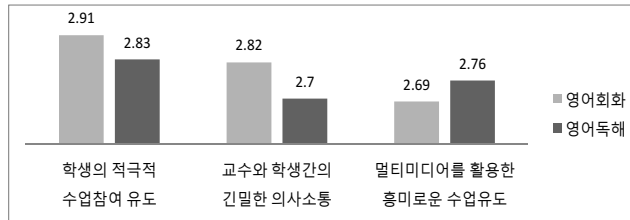


그림 5 필수영어 과목들의 보완되어야 할 수업방법

학습자들과의 면담에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조원들 간의 자유로운 질문과 대답 활성화,’ ‘간단한 프로제이션과 같은 개인발표의 활성화,’ ‘예습과 복습을 활성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Mackey(2012)은 학습자들 간의 조별 활동이 학습자가 자기만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전체 수업 활동보다 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교실규모가 큰 경우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학습자들에게 책임감과 자율성을 부여해 주며, 무엇보다 학습자의 수준과 목표 등 개개인의 다양한 특성에 맞는 수업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강조하였다.

3. 수준별 수업

1) 수준별 수업의 필요성

수준별 수업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 여부에 대해서는 표 5에서 보듯이 78.0%의 학생들이 수준별 수업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가 다른 선행연구(김상수, 2009; 김현옥, 2007; 정동수, 김해동, 2001; 정영숙, 최영승, 2002)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수준별 수업이 대학 교양영어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표 5

수준별 수업의 필요성

| 필요성 | 매우 불필요 | 불필요 | 필요 | 매우 필요 |
|--------|----------|-----------|------------|-----------|
| 학생수(%) | 13(3.8%) | 63(18.3%) | 205(59.4%) | 64(18.6%) |

2) 수준별 수업의 찬반 이유

표 6처럼 수준별 수업을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181명(52.5%) 응답자들이

‘학생 수준에 적절한 교재 및 눈높이 학습 효과 기대’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학생 수준에 맞고 다양한 평가 방식의 선택 가능(22.0%), 동질 집단 내 경쟁심 유발로 학업 성취도 상승효과 기대(12.8%), 집단 내 동질성 확보로 인해 개인의 학습동기 유발(12.2%) 순으로 그 필요성의 이유를 들었다.

표 6

수준별 수업을 찬성하는 이유

| 항 목 | 학생수(%) |
|-------------------------------------|------------|
| 집단 내 동질성 확보로 인해 개인의 학습동기 유발 | 42(12.2%) |
| 동질 집단 내 경쟁심 유발로 학업 성취도 상승효과 기대 | 44(12.8%) |
| 학생 수준에 적절한 교재를 선택할 수 있고 눈높이 학습효과 기대 | 181(52.5%) |
| 학생 수준에 맞고 다양한 평가 방식의 선택 가능 | 76(22.0%) |
| 기타 | 2(0.6%) |

이러한 결과는 김영숙과 이지연(2009)이 지적하듯이 수준별 수업이 학습자의 수준에 맞춘 눈높이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 외에도 평가 결과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구조적인 요소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 외 기타 의견에서 ‘수준이 높은 학습자와 수준이 낮은 학습자가 함께 학습을 하게 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므로 긍정적인 학습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표 7

수준별 수업 불필요성의 이유

| 항 목 | 학생수(%) |
|-------------------------------------|-----------|
| 수준별 반편성으로 인해 위화감, 열등감 혹은 우월감이 조성 우려 | 29(38.2%) |
| 같은 수준의 집단내에서만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므로 학습효과 불충분 | 34(44.7%) |
| 학생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 불명확 | 11(14.5%) |
| 기타 | 2(2.6%) |

수준별 수업을 반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표7처럼 ‘같은 수준의 집단 내에서만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므로 학습 효과가 불충분’(44.7%), ‘수준별 반편성으로 인해 위화감이나, 열등감 혹은 우월감이 조성 우려’(38.2%), ‘학생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불명확’(14.5%)하다는 이유로 수준별 수업에 반대하는 의견을 보였다.

3) 수준별 수업 기준평가 도구

수준별 수업에 찬성할 경우 그 기준평가 도구로 무엇이 가장 적절한지 조사하였을 때, 표 8에서 보여주듯이 응답자들은 가장 적절한 분반 편성 도구로 ‘학교에서 자체 개발한 영어시험 성적’(40.9%)을 가장 많이 선호 하였고, 그 다

음으로는 ‘모의 토익시험 성적’(25.5%) ‘외부공인 영어시험 성적’ (20.3%)을 선택했고, ‘수능영어시험 성적’(12.1%)을 가장 낮게 선호했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들이 외부공인영어시험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심리적인 부담과 한 번의 시험으로 영어실력을 측정하는 수능시험에 대한 학습자의 신뢰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8
수준별 분반 기준평가 방식

| 항 목 | 학생수(%) |
|---------------------------------|------------|
| 수능시험의 영어성적 | 42(12.1%) |
| 모의토익 시험 성적 | 88(25.5%) |
| TOEIC/TOEFL/TEPS 등 외부공인 영어시험 성적 | 70(20.3%) |
| 학교에서 자체 개발한 영어시험 성적 | 141(40.9%) |
| 기타 | 4(1.2%) |

면담에서 학생들은 ‘토익시험에 경험이 없는 신입생들에게 모의토익 시험이나 외부공인영어시험을 분반 기준 평가도구로 삼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학생들의 수능 영어성적을 고려하고, 학교에서 자체 개발한 영어시험을 통해서 반편성해야 한다,’ ‘영어독해와 영어회화수업을 분반하는 평가 도구 이므로 독해와 듣기 능력만을 측정하는 모의토익시험 보다는 학교에서 자체 개발한 영어독해 지필 고사와 말하기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을 통해서 반편성 기준을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위의 연구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수(2009) 연구에서 학습자(56%)들은 반편성 기준으로 사용할 평가도구로 교내에서 자체 개발한 영어시험 성적을 가장 많이 선호했으며, 교수자(44%) 들도 전혀 토익시험을 치른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 아무런 준비 없이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은 실질적인 학습자의 영어실력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교내에서 자체 개발한 시험을 분반 평가도구로 가장 많이 선호하였다. 조정순(2002)은 67개 대학교 중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는 20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준별 반편성의 도구로 외부공인 영어시험(35%)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학교에서 자체 개발한 영어시험(5%)을 사용하는 학교가 가장 적었다고 보고했다.

4. 영어졸업인증제 및 영어인증학점제

1) 영어졸업인증제

영어졸업인증제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표 9처럼 69.8%의 학생들은 필요하거나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므로 영어졸업인증제도 실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김상수,

2009; 정동수, 김해동, 2001; 정영숙, 최영승, 2002)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동수와 김해동(2001)의 연구에서 66%의 응답자들이 영어인증시험을 통해서 학습의 동기를 증가시키고, 공신력 있는 학교에서 인증을 해주는 것이 일반 시험을 보는 것보다 취업이나 진학 시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영어졸업인증제 실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표 9

영어졸업인증제의 필요성

| 필요성 | 매우 불필요 | 불필요 | 필요 | 매우 필요 |
|--------|----------|-----------|------------|-----------|
| 학생수(%) | 25(7.2%) | 79(22.9%) | 195(56.5%) | 46(13.3%) |

영어졸업인증제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그 실시방법에 대한 선호도를 물었을 때,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부공인 영어시험에서 일정 수준 이상 점수를 획득하면 필수교양영어 수강의무를 면제’한다는 항목에 대해서 학습자들이 가장 많은 선호도(3.10)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계열별 또는 전공별 자율적 시행’(2.71), ‘교내에서 개설한 필수교양 과목 이수’(2.63), ‘교내에서 자체 제작한 영어능력 시험통과’(2.53)순으로 그 선호도를 보였다.

표 10

영어졸업인증제 실시방법

| 항 목 | 평균 | 표준편차 |
|-----------------------------------|------|-------|
| 외부공인 영어시험(TOEIC/TOEFL/TEPS) 성적 통과 | 3.10 | 0.731 |
| 교내에서 자체 제작한 영어능력 시험 통과 | 2.53 | 0.893 |
| 교내에서 개설한 필수교양 과목 이수 | 2.63 | 0.841 |
| 계열별 혹은 전공별로 영어졸업인증제 자율적 시행 | 2.71 | 0.879 |

그 실시 방법에 있어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비교해 보면 정영숙과 최영승(2002)의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이 외부공인 영어시험을 통한 영어졸업 인증제 실시를 가장 선호한 반면에 김상수(2009)의 연구에서 계열별로 자율적인 시행으로 졸업인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조정순(2002)은 조사한 67 대학 가운데 34개 대학이 영어졸업인증제를 실시하고 있고, 그 실시방법으로는 외부공인 영어시험을 채택한 학교가 가장 많았으며, 교내에서 자체 제작한 시험을 통한 졸업인증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학생들과의 면담에서 ‘영어졸업인증제를 실시할 경우 어느 유형의 시험도 찬성하나 학과의 특성을 고려한 후 기준 점수를 정해야 한다,’ ‘영어가 중요하지 않은 학과도 있는데, 일률적인 기준 점수를 적용하여 졸업 못하게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며, 학교에선 학생들이 영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제도의 의미는 있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2) 영어인증학점제

영어인증 학점제에 대한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표 11처럼 58.3%의 학생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준 반면에 41.8%가 필요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줌으로써 찬성과 반대에 대해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표 11

영어인증학점제의 필요성

| 필요성 | 매우 불필요 | 불필요 | 필요 | 매우 필요 |
|--------|-----------|------------|------------|-----------|
| 학생수(%) | 36(10.4%) | 108(31.3%) | 158(45.8%) | 43(12.5%) |

이 연구와 유사한 연구결과를 보여준 김상수(2009)의 연구 역시 41%의 학습자는 찬성 하였고, 36%는 반대하는 의견을 주어 영어인증학점제에 대한 찬반이 거의 비슷하였다. 그러나 정영숙과 최영승(2002)에서는 영어인증 학점제에 대해서 84.7%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외부공인 영어시험 성적을 통한 수강의무 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인증학점제를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표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험 준비 과정에서 유용한 영어실력 향상(51.5%), 평가척도로서의 높은 타당도와 신뢰도(38.5%), 그리고 학교에서 받은 점수보다 사회적으로 높이 인정받을 수 있다(10%)는 이유를 들었다.

표 12

영어인증학점제의 필요성의 이유

| 항 목 | 학생수(%) |
|----------------------------|------------|
| 평가척도로서의 높은 타당도와 신뢰도 | 89 (38.5%) |
| 시험 준비 과정에서 유용한 영어실력 향상가능 | 119(51.5%) |
| 학교에서 받은 점수보다 사회적으로 높은 인정받을 | 23(10.0%) |

표 13에서는 영어인증학점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응답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을 때 ‘대학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존재 의미 상실’(40.4%)을 가장 우려하였고 영어인증학점제 실시 자체가 비교육적임을 시사했다. 또 다른 유로는 ‘실용적 영어실력의 지표가 될 수 없음’(30.7%), ‘인증 가능 점수 받기 위해서 과도한 시간과 노력 필요’(17.5%), ‘수험비용으로 인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가중’(9.6%)된다는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영어인증 학점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13

영어인증학점제의 불필요성의 이유

| 항 목 | 학생수(%) |
|-------------------------------|-----------|
| 실용적 영어실력의 지표가 될 수 없음 | 35(30.7%) |
| 인증 가능 점수 받기 위해서 과도한 시간과 노력 필요 | 20(17.5%) |
| 수험비용으로 인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가중 | 11(9.6%) |
| 대학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존재 의미 상실 우려 | 46(40.4%) |
| 기타 | 2(1.8%) |

5. 선택영어 교과목에 관하여

교양영어 프로그램에서 개설되어 있는 선택영어 과목을 지금보다 확대 개설해야 할 필요성, 더욱 강화되기 원하는 영어능력, 확대 개설할 필요가 있다면 그 교과목 성격에 대해 조사하였다.

표 14

선택영어 교과목 확대 개설 필요성

| 필요성 | 매우 불필요 | 불필요 | 필요 | 매우 필요 |
|--------|----------|-----------|------------|-----------|
| 학생수(%) | 16(4.6%) | 89(25.8%) | 184(53.3%) | 56(16.2%) |

표 14에서 보듯이 69.5%의 학습자들이 향후 선택영어 교과목을 확대 개설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였다. 이것은 앞으로 선택교양 영어과목을 좀 더 폭넓게 개설할 필요에 대해서 학습자의 요구가 매우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들(김상수, 2009; 이예식, 임흥미, 2005; 조정순, 2002)에서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김상수(2009)연구에서는 64%의 학생들이 확대개설이 필요하다는 응답에 비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훨씬 적은 것(7%)으로 나타났다. 이예식과 임흥미(2005)는 개개인의 취향과 요구가 각기 다른 학습자들이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과목을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과목개설에 대한 문제점이 여전히 개선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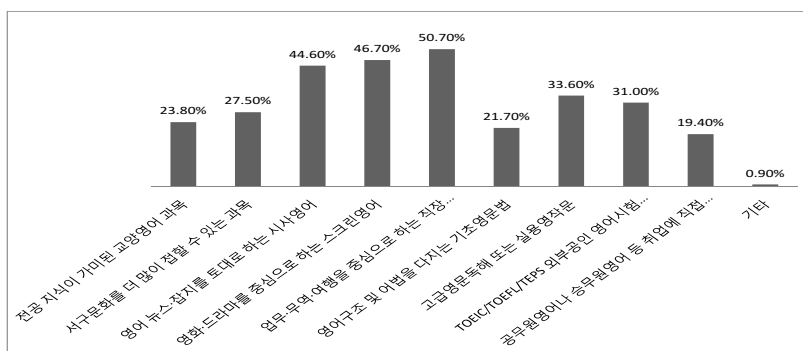


그림 5 선택영어 과목으로 확대 개설이 필요한 교과목

확대 개설이 필요한 교과목 영역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선택하게 하였을 때 그림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습자들은 ‘업무·무역·여행을 중심으로 하는 직장 실무영어’(50.7%)을 가장 선호하였고, 그 다음으로 ‘영화·드라마를 중심으로 하는 스크린영어’(46.7%), ‘영어 뉴스·잡지를 토대로 하는 시사영어’(44.6%), ‘고급 영문독해 또는 실용 영작문’(33.6%), ‘외부공인 영어시험 대비 과목’(31.0%)순으로 선호하였다. 이에 반해서 서구 문화를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과목(27.5%)이나, 전공 지식이 가미된 교양영어 과목(23.8%), 영어구조 및 어법을 다지는 기초영문법(21.7%), 그리고 공무원 영어나 승무원 영어 등 취업에 직접 대비할 수 있는 과목(19.4%)은 상대적으로 선택 비율이 낮았다. 조정순(2002)의 연구도 66%의 학습자들이 선택영어 확대 개설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확대 개설이 필요한 영역으로는 주로 (영미)문화와 관련된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공분야와 관련된 특수 목적영어, 인터넷 활용영어, 통합기술적 과목 개설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6. 비정규 영어프로그램

정규 교과과정 외에 별도의 비정규 영어프로그램의 개설이 필요한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표 15에서 볼 수 있듯이 73.3%의 학습자들이 비정규 영어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표 15

비정규 영어프로그램의 필요성

| 필요성 | 매우 불필요 | 불필요 | 필요 | 매우 필요 |
|--------|---------|-----------|------------|-----------|
| 학생수(%) | 9(2.6%) | 83(24.1%) | 208(60.3%) | 45(13.0%) |

또한 개설된다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표 16처럼 학습자들은 외국어교육원 수준별 집중영어 프로그램(67.2%)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수준별 온라인 프로그램 개설(50.7%), 방학기간 중 교내에서 개최하는 영어캠프 입소(25.8%), 교내 영어카페(English Cafe)내 수업 개설(35.9%) 순으로 선호도를 보였으며, ‘각종 영어 경시대회, 해외 연수 및 배낭여행 설명회 등 다양한 행사 개최’(18.3%)는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여주었다. 기타 의견에 ‘학습자들의 자발적인 영어모임을 유도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표 16

비정규 영어프로그램 개설 선호도

| 항 목 | 학생수(%) |
|--------------------------------------|------------|
| 방학기간 중 교내에서 개최하는 영어캠프 입소 | 89(25.8%) |
| 교내 영어카페(English Cafe)내 수업 개설 | 124(35.9%) |
| 수준별 온라인 프로그램 개설 | 175(50.7%) |
| 외국어 교육원에서 수준별 집중 영어 프로그램 개설 | 232(67.2%) |
| 다양한 행사(영어 경시대회, 해외 연수 및 패닝여행 설명회) 개최 | 63(18.3%) |
| 기타 | 7(2.0%) |

마지막으로 표 17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비정규 영어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학점 인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62.3%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표 17

비정규 프로그램 학점인정의 필요성

| 필요성 | 매우 불필요 | 불필요 | 필요 | 매우 필요 |
|--------|----------|------------|------------|-----------|
| 학생수(%) | 18(5.2%) | 112(32.5%) | 175(50.7%) | 40(11.6%) |

V. 결론

본 연구는 연구대상 학교의 현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보고 보다 효율적인 영어교육을 위한 보완적 내지는 대안적 방안들을 모색함에 있어서 교육행정가들의 일방적인 진행이 아닌 교육의 주체인 학습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그리고 협상된 교과과정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전반적인 교양영어 프로그램, 필수영어 과목들의 각 부분별 세부적인 영역(강좌의 종류나 내용, 강좌당 학생 수, 교수의 전문성 및 교수법, 평가방법, 강의실 환경), 교재, 수준별 수업, 영어졸업인증제 및 영어인증학점제, 선택영어 과목, 비정규 교과과정 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 조사의 연속선상에서 개선 방안을 위한 교과목 목표, 적절한 필수영어 학점수와 주당 시수, 반별 적정 인원수, 수준별 수업을 위한 반편성 기준 도구, 선택영어 과목 개설의 필요성 및 개설될 교과영역, 비정규 영어프로그램의 학점 인정 필요성 등 여러 가지 영역을 학생들의 요구분석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들로부터 학생들은 현 교양영어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필수교양 영어과목들의 각 부분별 영역(강좌의 종류나 내용, 교수자의 전문성 및 교수법, 평가방법, 강의실 환경, 강좌당 학생수)에 관련하여 재정적, 행정적인 차원에서 보완이 이루어져야겠다. 가령, 강좌 수를 늘린다든지, 영어회화는 20명을 유지하고 영어독해의 경우 강좌당 학생수를 25-30명

이내로 줄인다는지, 효율적인 수업을 위해 강의실 환경이 보완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학습목표가 학습자의 통합적 동기와 도구적 동기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학생들의 영어교육의 필요성 인식에 따라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할 학점 수와 주당 수업시간 수를 늘리는 것도 고려해 봄이 바람직하다.

교재에 대한 학습자들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지만 영어회화는 내용의 흥미도와 다양성이, 영어독해의 경우에는 교재의 난이도 수준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러므로 교재를 선정할 때 학습자들의 전공이나 수준을 고려하여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내용과 주제를 포함한 교재를 선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습자 모두가 선호하는 내용이나 주제를 한 권의 교재를 통해서 만족시키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교재의 내용을 살펴보고 학습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는 보충 교재를 추가로 제작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장 효율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학습자들의 영어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거기에 최대한 부합하는 수준의 교재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더 세분화된 수준별 반편성이 이루어진다면 교재의 난이도 또한 각 반의 수준에 맞출 수 있어 교재의 난이도에 따른 학습자들의 불만족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학습자의 수준이 다른 경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수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주 교재를 정하고 부교재를 통해 학습자들의 언어능력별로 취약한 부분은 다양한 활동(가령, 온라인을 이용한 연습이나 과제)을 보충하여 학습자들의 성취감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준별 수업이 능력별 동질집단 편성을 통해 학습자의 영어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학습자 개개인의 편차에서 오는 교육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 방법으로 기존의 대학 교양영어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김현옥, 이해경, 2010)이라고 본다면 수준별 교육에서의 분반, 교재의 선택, 교수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와 탐색이 요구된다.

먼저 분반기준 평가도구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교내 자체 제작 시험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을 감안할 때 학생들의 정확한 영어실력을 측정하기 어려운 외부공인시험보다는 학교에서 자체 개발한 시험으로 평가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학교에서 자체 개발한 시험은 ETS와 같은 전문 영어시험 기관에서 만드는 외부공인영어시험보다 그 신뢰도와 타당도가 미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준별 반편성에 있어서 의도한 균질의 학습자 수준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준별 수업목표나 수준단계에 적합한 시험문제를 출제함에 있어서 세부적인 시험문제 유형, 분량, 난이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수준이 유사한 학습자 간의 경쟁에 따른 학점상의 불이익 때문에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준별평가 시험에서 낮은 성적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능력보다 낮은 수준의 반을 선택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획일화된 상대평가에서 벗어나 평가의 비율을 조정하거나 필

요하다면 절대평가, 또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결합한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가령, 수준이 높은 단계의 반에서는 상대 평가보다는 절대평가를 도입하거나 A학점의 비율을 현행 30%에서 60%내지 70%까지 부여함으로써 수준 높은 학습자들이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 굳이 수준이 낮은 단계의 반을 수강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외에도 이미 두 단계로 실시되고 있는 중급단계 내에서도 더욱 세분화된 단계로 반편성함으로써 학습자간의 격차 좁힘으로 교재 선택 및 수업운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한 학기 마친 후 학습자들의 수준을 재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단계의 반으로 이동할 수 있는 유연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영어졸업인증제 실시에 대해서는 학습자의 69.8%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영어인증학점제에 대해서는 58.3%가 찬성과 반대의 견해가 비슷한 것으로 보여 주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영어졸업인증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공별로 영어능력 요구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전공별/계열별 영어졸업인증제의 기준 점수를 유연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부공인시험으로 인증학점을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칫 학생들이 대학 교양영어 교육보다는 외부공인시험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대학 영어교육의 존재의미 상실을 가져 올 수도 있고, 평가도구가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에 부족한 것을 인식하여 필수영어과목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은 선택과목을 수강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영어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본 연구 결과를 포함하여 다양한 선행연구 결과 영어인증학점제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차후 이 제도를 실시하거나, 현재 실시 중인 전공 계열에서 개선책을 마련할 때 학습자와 교수자를 대상으로 한 자세한 요구분석을 먼저 실시하여 종합적인 계획 마련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외에도, 학교 행정적인 차원에서 정규과정 외에 학교내 어학 프로그램이나 방과후 프로그램(English Cafe와 English Clinic)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학습할 공간이나 기회를 조성하도록 적극적으로 보완하여야겠다. 더불어 정규과정에서 다룰 수 없는 과목들을 비정규 영어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유도하기 위한 학점 인정의 필요성을 고려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따라서 학습자의 요구가 높은 과목들을 학점이 수반되는 정규 교과과정 영역 속에 포함시키고, 그 외에 다양한 해외경험 프로그램들과 취업에 직접 관련된 좀더 전문화된 과목(가령, 승무원영어, 면접영어)이나 수준 높은 학습자들을 위한 심화과정(가령, 대학원영어, 법률영어), 그리고 학습능력이 많이 부족한 학습자를 위한 보충 학습 할 기회는 비정규 프로그램 속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된다면 비정규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 기회의 활성화는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강한 동기를 부여하여 교양영어 수업의 내실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 교양교육과정의 현황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항들은 비단 연구대상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의 국내 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관심사라는 점에서, 이 연구가 제시하는 학습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제도적 현황의 문제점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보완적 장치 및 대안들은 여타 많은 대학들의 제도 변화나 개선을 위한 참고 자료로서 또는 유사한 연구 조사의 출발점으로 이용되기를 기대한다. 이처럼 교양영어 프로그램 운영사례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지속적인 연구는 향후 대학들이 시도할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대학 교양영어 교육의 체계적인 발전에 고무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권연진. (2002). ICT기반 온라인 영어교육 시스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새한 영어영문학*, 44(2), 567-589.
- 김경자. (2004). “글로벌 영어” 운영사례와 효과: 대학생을 위한 실용영어 프로그램.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1(3), 133-154.
- 김상수. (2009). *대학 교양영어교육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구.
- 김순복. (2000). 21세기형 대학교양영어 교육과정: 가상수업과 교실수업의 최적의 3단계 융합모형 및 그 실제. *영어교육*, 55(2), 147-177.
- 김영숙, 이지연. (2009). 대학 교양영어 수준별 수업에 대한 학습자와 교수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영어교육*, 64(4), 337-368.
- 김현옥. (2007). 교양영어 프로그램에 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만족도 및 인식비교. *외국어교육*, 14(3), 179-205.
- 김현옥, 이해경. (2010). 대학 교양영어 수준별 프로그램 운영방안. *영어교육 연구*, 22(4), 75-101
- 남정미, 김성애. (2008). 인터넷 환경에서의 포트폴리오 활용 영어수업. *외국어교육*, 15(3), 203-228.
- 박준언. (2005). 한국 대학영어교육 현황분석. *한국영어 영문학회 학술발표회: 발표논문집* (pp. 233-237). 한국영어영문학회, 조선대학교.
- 방영주. (2004). 영어능력인증제, 능력별 교과과정, 그리고 대학 교양영어교육: 학생과 교수자의 인식에 관한 고찰. *영어어문교육*, 9(2), 193-211.
- 방영주, 양미란. (2011). 영어졸업인증제의 현황 및 방향모색. *현대영어교육*, 12(4), 282-302.
- 성기완, 표경현, 이현명. (2004). 대학 교양영어 수준별 교육과정 모형개발연구. *외국어교육*, 11(2), 377-406.

- 성명희. (2005). 대학 영어인증제 고찰 및 제언. *영어교과교육*, 4(2), 97-111.
- 송미정, 박용예. (2004). 대학 교양영어의 통합적 접근: 서울대학교 대학영어 프로그램의 사례 연구. *영어교육*, 59(2), 179-211.
- 송희심. (2007). 대학 교양영어 교과목에서 온라인 매체 활용이 학습 성과에 미치는 영향. *외국어 교육*, 14(2), 209-231.
- 이예식, 임홍미. (2005). 교양영어교육의 실태와 개선방향. *중등교육연구*, 53(3), 257-276.
- 임희정. (2005). 멀티미디어 활용 교양 영어 교과목 개발연구: 학습자 요구도를 중심으로. *영어교육연구*, 17(3), 235-257.
- 정동수, 김해동. (2001). 대학의 교양영어 과목 개선을 위한 연구. *영어교육*, 56, 265-292.
- 정영숙, 최영승. (2002). 대학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방안. *영어교육연구*, 14(1), 253-275.
- 조정순. (2002). 대학 교양영어교육의 현황과 방향성 탐구. *영어교육*, 57(2), 365-394
- 최연희, 강명희. (2002). 온라인 멀티미디어 영어교육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멀티미디어 언어교육*, 5(2), 182-212.
- 최진국. (2008). *Blended learning*을 활용한 대학 교양영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미출간 박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구.
- Brown, J. D. (1995). *The elements of language curriculum: A systematic approach to language program*. Boston: Heinle & Heinle.
- Kim, Myonghee. (2009). How do college students react to TETE? *Modern English Education*, 10(3), 62-89.
- Kim, Sung-Ae. (2002). A critical reflection on the 'teaching English through English' classes in the Korean context. *English Teaching*, 57(4), 315-346.
- Kim, Sung-Yeon. (2008). Five years of teaching English through English: Responses from teachers and prospects for learners. *English Teaching*, 63(1), 51-70.
- Lee, Jin-Hwa. (2007). Where to start teaching English through English: Based on perceived effectiveness of teachers' English use. *English Teaching*, 62(4), 335-354.
- Mackey, A. (2012). *Input, interaction, and corrective feedback in L2 learn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Nunan, D. (1988). *The Learner-centered curriculu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h, Hee-jeong, & Lee, Eun-hee. (2010). College students' attitude towards teaching English through English and its effectiveness. *English Language Teaching*, 22(4), 211-229.

부록 1

국내 대학별 필수교양영어 교육 현황

| 대학 | 필수교양과목 | 학점/ 시수 | 수강 인원 | 교수자 | 학급 편성 |
|--------------------|--|-----------|----------|------------|------------|
| 가천대 | Academic English 1&2 | 12/24 | 25 | 원어민 내국인 | 수준별 |
| | Speaking Practice A~D (4 level) | | 25 | 원어민 내국인 | |
| 강원대 | 의사소통영어1 | 4/4 | 30 | 원어민 내국인 | 계열별 |
| | 의사소통영어2 | | 40 | | |
| 건국대 | 대학영어1 | 3/3 | 35 | 원어민 | 계열별 |
| 경희대 | 영어1 & 영어2 | 4/6 | 30 | 원어민 | 수준별 |
| 고려대 (서울) | Academic English I | 4/8 | 30 | 원어민 | 수준별 |
| | Academic English II | | | | |
| 공주대 | 실용영어2 | 2/2 | 20 | 원어민 | 수준별 |
| 단국대 (죽전) | 글로벌영어1 & 글로벌영어2 | 8/8 | 40 | 원어민 | 수준별 |
| | 브릿징영어말하기 & 쓰기 | | 40 | 내국인 | |
| 동국대 (경주) | Freshman English 1 & 2 | 6/10 | 30 | 내국인 | 수준별 |
| | English Conversation 1~2 | | 15~18 | 원어민 | |
| | English Conversation 3&4, Speaking Presentation | | 15~18 | 원어민 | |
| 명지대 (서울 &용인) | 영어1 or 영어3 | 6/8 | 36 | 내국인 | 수준별 |
| | 영어2 or 영어4 | | 36 | 내국인 | |
| | 영어회화1 or 영어회화3 | | 20 | 원어민 | |
| | 영어회화2 or 영어회화4 | | 20 | 원어민 | |
| 부경대 | 실용영어회화1 & 실용영어회화2 | 4/4 | 30 | 원어민 | 수강자별 |
| 상명대 (천안) | 영어 1 | 4/4 | 40 | 원어민 | 계열별 |
| | 영어 2 | | 40 | 내국인 | |
| 서울 과 학 기술 대 | 영어1 or 고급영어1 | 6/8 | 40 | 내국인 | 수준별 수준별 |
| | 영어2 or 고급영어2 | | 40 | 내국인 | |
| | 실용영어회화1 or 고급실용영어 회화1 | | 20~24 | 원어민 | |
| | 실용영어회화1 or 고급실용영어회화1 | | 20~24 | 원어민 | |
| 서울대 | 대학영어1 | 4/6 | 20 | 원어민 내국인 | 수준별 |
| | 대학영어 2 | or 5/6 | 20 | | |
| | 고급영어 | 15~20 | | | |
| 서울 여대 | 영어 1 | 4/6 | 25 | 내국인 | 수준별 |
| | 영어 2 | | 25 | 원어민 | |
| 아주대 | 영어1 or 고급영어1 | 6/6 | 30 | 원어민 | 수준별 |
| | 영어2 or 고급영어2 | | 30 | 내국인 | |
| 영남대 | 영어강독 1 | 6/6 | 40 | 원어민 | 수준별 |
| | 영어회화 1 | | 40 | 내국인 | |
| 안양대 | 실용영어I/실용영어II | 8/12 | 30 | 내국인 | 수준별 |
| | 영어회화I/영어회화II | | 30 | 원어민 | |
| 연세대 (서울) | 대학기본영어I or 대학영어I or 고급대학영어I | 4/4 | 20 | 원어민 내국인 | 수준별 |
| | 대학기본영어II or 대학영어II or 고급대학영어II | | 20 | 원어민 내국인 | |

| 대학 | 필수교양과목 | 학점/시수 | 수강인원 | 교수자 | 학급편성 |
|-------------|-------------------------------------|--------|-------|------------|---------------------|
| 이화여대 | College English | 6/6 | 25 | 내국인 원어민 | 수준별 |
| | Advanced English | | | | |
| 인하대 | Academic English 1 | 6/6 이상 | 26 | 원어민 | 수준별 |
| | Academic English 2 | | 26 | 원어민 | |
| | Academic English Reading | | E-러닝 | 내국인 | |
| 전북대 | 실용영어 | 3/3 | 30 | 원어민 | 수준별 |
| 제주대 | 영어회화100/읽기100/쓰기100 | 4/4 | 25 | 내국인 원어민 | 수준별 (수준별 택 2) |
| | 영어회화200/읽기200/쓰기200 | | 25 | | |
| | 영어회화300/읽기300/쓰기300 | | 25 | | |
| 중앙대 (서울) | English 1 & English 2 | 4/6 | 25~28 | 원어민 내국인 | 계열별 |
| 중원대 | 영어회화 1~4 | 8/8 | 15~20 | 원어민 내국인 | 수준별 |
| 충신대 | English Listening&Speaking I | 8/8 | 25 | 원어민 | 수준별 |
| | English Listening&Speaking II | | 25 | | |
| | English Reading& Writing I | | 25 | | |
| | English Reading & Writing II | | 25 | | |
| 충북대 | Action English | 6/8 | 70 | 원어민 | 계열별 학과별 |
| | 영어읽기 및 토론 | | 70 | 내국인 | |
| 충남대 | 통합영어, 실용의사소통영어 시사영어, 고급영문읽기[택 2] | 6/6 | 25 | 원어민 | 수강자별 |
| | | | 50 | 내국인 | |
| 한양대 | ProfessionalAcademic English | 3/3 | 20 | 원어민 | 수준별 |
| 한경대 | 영어 | 3/3 | 60 | 내국인 | 계열별 |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College

Youngjoo Bang

Myongji University, Bangmok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34 Geobulgol-ro Seodaemun-gu, Seoul, Korea 120-728

Tel: (02) 300-0876

Email: yjbang@mju.ac.kr

Received 15 September 2014

Revised 17 November 2014

Accepted 21 November 2014